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제9대 한경국립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 입후보한 김찬기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대학 교육, 특히 국립대학의 교육 현실 역시 녹록지 않은 도전적 과제들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곧 닥칠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복합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출산 학령인구의 감소는 대학 입학 자원의 감소라는 근본적 문제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 자체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높일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학습 성취도를 보이고 있는 학생들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 체계의 확립 문제도 시급히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와 더불어 AI로 야기되는 혁명적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의 학습과 교수 행위가 아닌, 창의적 역량 개발 및 인성의 함양, 그리고 소통과 공감의 협업 능력 배양에 기초한 혁신적 대학 교육이 요청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교육 환경의 변화는 무엇보다도 공유와 협업의 조직 문화를 이끌어낼 리더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기와 성인 학습기를 거치면서 다양한 인문적 성찰의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기를 공동체적 협업 문화가 매우 절실하게 요청되는 농촌 공동체에서 성장하면서 공유와 협업의 역량들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되는 환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타인을 존중하고 더불어 협력하는 역량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량들은 향후 도래할 대학 교육 및 대학 기관의 장이 되어서 소중하게 쓰일 수 있는 역량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는 인문학(국문학) 학습과 연구에 지금까지 매진한 터라 인간과 사회를 깊이 있게 바라다보는 능력 또한 자연스럽게 함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저의 인문적 성찰 능력은 4개의 학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또한 대학의 주요 보직을 보임하면서도 잘 발휘되어 맡은 바 임무를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친구와 주변 동료들로부터 외유내강형 학자풍 교수이면서도 학회 및 행정에 임하면, 조직의 갈등을 가장 깔끔하게 처리한다는 평을 받아왔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인간과 세계에 대한 진지한 인문적 탐색에 기초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저의 내적 역량은 향후 우리 대학의 기관장이 되어서도 유감없이 잘 발휘되어 대학 교육 행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대학의 대내외적 환경은 여러 겹의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무엇보다도 대학 구성원과 소통과 협

업을 잘 할 수 있는 총장을 요구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역량에 기초하여 우리 대학의 20년 숙원인 거점대학을 완성하고, 더 나아가 수도권
권의 우수한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시 마련하고자 합니다.